

* 지난주 강단제목 : 대속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창 22:17, 마 16:13-16)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 **임례송** | 오르간
- ★ **예배의 부름**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 **응답송** | 찬양대
- ★ **예배선언** |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 **경배의 찬양** |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같이
- ★ **고백과 용서의 말씀** | 설교자
- ★ **주기도** |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 **성서교독** | 126. 사순절(3) / 인도자와 회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어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꾀담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와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25:1-10)

찬송 |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 다같이

증보의 기도 | (1부) 유승범 장로 (2부) 김순호 장로

성경봉독 | 에스겔 33:6(구약 1201쪽), 사도행전 20:24-27(신약 224쪽) / 인도자

찬양 | (1부) 십자가 그 사랑 / 시온찬양대 (영성)

(2부) 십자가의 전달자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 **그날 강가에서 살리는 비밀을 발견한 파수꾼 에스겔**

-복음으로 여는 에스겔- / 설교자

봉헌 |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 설교자

★ **결단의 찬송** | 언약의 사람이(1절) / 다같이

언약의 사람이 애굽과 광야를 두러워 말라 요단 앞에서 당황치 말라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 언약을 체험하리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리라

여리고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 너와 나의 사명을 체험하리라

그날은 정녕 찾아오리라 성취되리라 언약의 날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에, 그날 오리라 사명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 **파송의 말씀** | 설교자

★ **봉헌기도·축도** |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이명 장로 (2부) 김영진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건강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임예진 권사 (오후) 조현지 집사
인도, 설교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장길순 권사 (오후) 최송화 권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관리국
설교	이현규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재정국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화) 이현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목) 박범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경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세례교육이 오늘부터 4주간 동안, 2부예배 후에 3층 대학 청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2. 2026년도 교회요람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4층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지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니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3월, 4월, 5월 마지막 주 램프부서 연합예배 후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이 진행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많은 성도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9, 10월은 참사랑선교사훈련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1) 참석대상 : 구역장, 권찰, 중직자, 사역자, 교사.
 - 2) 시간 : 1강(3-4시), 2강(4-5시). 3) 장소 : 5층 참사랑홀.
4. 4월부터 봄철 대심방을 시작합니다. 각 지역 전도인 및 구역장 여러분께서는 구역원들과 의논하셔서 심방 일정을 정하여 각 교구 담당교역자 또는 교역자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매일 구원의 길을 기록하실 분들에게는 분당 앞에 준비된 용지를 가지고 가셔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일오전예배, 수요일오후예배, 금요일야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일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프부서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하셔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심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현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현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만 및 교우소식

1.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로 14면에 있습니다.)
3.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요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프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트릭킵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철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목캘리그라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램프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퀴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교회소식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13) WIO스마트팝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가,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토크를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쿠키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올림픽공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4) 교육기관 :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인규)
 8.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혼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중직자대학원 개강 강의가 오늘 오후 5시에 3층 제2랩넛트실에서 있습니다.
 3. RU박사원(봄학기)이 3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미국 텍사스에서 진행됩니다.
 4. 제29차 2026세계선교대회가 4월 22일(수)부터 26일(주일)까지 '나의 지역에 일천' 당대를 세우라(행1:1-8)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1) 선교사합숙 : 4월 22일(수)~23일(목), 본대회 : 4월 24일(금) - 장소 : 덕평 RUTC.
 2) 선교사 후일 및 초청헌금(항공료, 선교사합숙, 선교대회)을 하실 성도분들은 선교헌금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었습니다. (1계좌 100만 원)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예금주 : 참사랑교회)

3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1주차	세계청년리더수련회(2, 덕평 RUTC), 237세가족현장사역자훈련(3, 덕평 RUTC), 초신·청신개강(7)
2주차	세례교육시작(8)
3주차	RU(봄학기)박사원(17~18, 텍사스)
4주차	랩넛트데이(28)
5주차	고난주일, 랩넛트부서연합예배,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29), 세례문답식(4.4) / 237화요제자훈련(31, 덕평 RUTC), 일본랩넛트대회(4.1~3, 나고야)

3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박동영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는 이영경
성찬위원	(5층)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6층) 김순호A 이명
안내위원	(위원장) 최명홍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대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정아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창희 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1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지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영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훈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홍근 김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경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요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화 장영호 여준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배명자 신옥희 김태은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서원 박서진 이현주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장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정용 전정아 박범사 김진아 심한걸 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 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종화 주재진-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정심 임근일 최철규 최신혜 이미지 김금남 유승범 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윤 강공이 배고은 홍미경 김용관-김정순 김재귀-장소녀 손병순 최송화 김영순 김희연 이미화 박인자 김순자 최재경 이은희 임영순 호진수 강공이 최이영 김애경 이영순 이순근 박서이 전은정 임소순 김나경 윤순옥 김정연 박숙자 유계숙 정민호-이서은 주예진 김명철 장유미 김갑례 현영화 나경철-신현식 안도근 조재형 홍명숙 양경아 여종원 전주을 박찬열 정수환 오이라 이주형 이민형 김창균 임예진 조현지 김태운 최영규-김윤지 여 명 임혜연 김지수 김지후-이현주 최일숙 임정미 손혜옥 이상구-이정미 유승환 최아연 안나근 윤태자 김소리 박난순 김승훈 김혜인 김영희 한경숙 이민수-김숙희 이연균 이효숙 조부영 채송아 안선희 박희영 오유라 최일숙 방주는 장혁준 배준서 안예근 권은희 홍경아 무명15		
십 일 조	정운돈 최신영 최정용 이현규-김수진 김원일-전인숙 정은숙 방주는 윤순옥 박점순 김애경 홍미경 임소순 양경심 오신자 정년영 정민호-이서은 김용관-김정순 김재귀-장소녀 손병순-박정수 유승환-강공이 배준서 여동훈 홍명숙 임경미 조성규 양경아 정예순 안나근 박주은 박찬열 김승훈 김혜인 정수환 이상구-이정미 고진순 이효숙 안선희 유경형-리종화 조부영 신승훈-박영인 호진수 송영희 안경호 노은현 박동영 오국환 박지영 정세완-박희영 이 명 최일숙 김지후-이현주 최보인 권은희 최송화 여 명		
감사헌금	정운돈 최정용 최신영 전정아 박서이 배고은 최송화 김갑례 박학규 김재귀-장소녀 강공이 양경심 정민호-이서은 문혜영 김용관-김정순 김현진 김지수 김지후-이현주 방주는 이상구-이정미 김태을 조재형 조연희 최신혜 이은숙 이효숙 박영인 이계옥 유경형-리종화 박동영-최진희 홍경아 대학선교교제자학생회13,147		
심방헌금	지복순-임상식-임민재-지성순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최정용 최신영 박서이 김용관-김정순 김재귀-장소녀 임소순 임영순 임혜미 이은희 정년영 정민호-이서은 양경심 오신자 이 명 안도근 조성규 양경아 박찬열 유승범 주은경 정수환 방주는 이상구-이정미 고진순 김순호 노은현 김승훈-김혜인 신승훈-박영인 박동영-최진희 오국환 최일숙 김지후-이현주 유경형-리종화 최송화		
스리랑가 차유센터	정수환 정민호-이서은	스리랑가 차유센터(2026년도 합계)	156,000원
현당헌금	정운돈 최정용 최신영 전정아 박서이 김용관-김정순 김재귀-장소녀 임소순 임영순 정민호-이서은 김일호 양경심 오신자 조성규 양경아 박찬열 유승범 주은경 방주는 정수환 이상구-이정미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신승훈-박영인 노은현 박동영-최진희 오국환 최일숙 김지후-이현주 최송화		
장학헌금	최정용 최신영 박범사-김진아 박서이 양경심 정민호-이서은 정년영 이 명 양경아 유승범 주은경 방주는 정수환 김창균-임예진 이상구-이정미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신승훈-박영인 노은현 박동영-최진희 유경형-리종화 최송화		
어학연수	정수환		
RUTC헌금	최신영 박범사-김진아 이현규-김수진 정년영 조성규 양경아 방주는 정수환 이상구-이정미 고진순 김승훈-김혜인 신승훈-박영인 노은현 박동영-최진희 최송화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2. 26. ~ 2026. 3. 3.)

현당헌금 (2026년도 합계)	35,143,000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16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2,324,000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245,000원

현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55,000,000엔 (환화 4,322,500,000원 / 10엔환율=9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현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는 박접순 이신순 <u>최일숙</u>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재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이은순A 김흥기 문길순 김갑례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u>최도연</u> 백은지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잠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리종화	홍경아	유경형 리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최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②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고정호 고정협 스톱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현 손보국 이정택 이은순B 이기원
	⑤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교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는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⑥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룬 안진성 문경화 안서윤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주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유희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이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혜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심한결 목사 | 총무: 양경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이은숙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양순옥 임선규 김태운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운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이영순 박준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허경열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염재 양경심 박주은 박주영 김수영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김순호A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배승찬 이 명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은A 김재승 윤소옥 구자성 송영희 이명재 구운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김영진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을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경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김순호B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계숙 고진순 방주은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리종화)	최신혜	이가에	송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장영균 송미걸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희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준홍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웅 김창호B 유정빈
	㉑가락 (정연규)	백소정	정선희	여동훈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은 노은현 손상현 이근제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신승훈 박영인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전주을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심한결 정지혜 심주연 심지연 정향란 이민수 김수화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소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을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대속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복음으로 여는 마태복음-

창세기 22:17, 마태복음 16:13-16

서론

1. 마태복음의 배경과 유대인의 오해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 복음서의 일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약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르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표적인 잘못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유대인의 세 가지 영적 오류

1) 선민사상과 배타적 민족주의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국수주의적 사고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강대국들의 패권주의로 나타나 세상을 전쟁과 멸망으로 몰아넣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 내가 죽고 희생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살리라는 것이었지,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는 세상을 살리는 소극적임 자신을 넘어 봉사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율법주의의 함정
 율법주의는 율법주의이다.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에 얽매어 이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명시한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이 영적 율법을 모르면 곱게만 남은 율법주의에 빠져 남을 정죄하게 된다.

3) 의식주에 매인 권력 이부형 신앙 체계
 바른 복음을 모르기에 세상 권력과 의식주에 매이는 태도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왕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메시야가 베들레헤에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문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의 돈과 생계문제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은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없다.

2. 후대 서밋운동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삼중직의 축복

(1) 렘넌트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선교적 비전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여 이번에 렘넌트들이 홍콩현장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한 선교사 자녀가 선행적으로 있는 국제학교의 학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1년 학비인 줄 알았으나, 한 달 비용이라는 사실에 나는 새로운 언약을 붙잡았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1억을 들여서라도 우리 후대를 위한 최고의 현장에 보내 서밋으로 키워야겠다는 기도를 하였다. 성도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풍요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가난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는 이 가난의 흑암을 박살내야 한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내한 젊은 장로님은 금융과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다. 그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세 시간 동안 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설명해 주었다. 시간이 장악하여 거짓과 분열, 탐욕으로 잠탈된 금융의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가진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다. 우리 후대들은 다니엘과 요셉처럼 세상의 주류 속으로 들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영력과 지력을 겸비해야한다.

(2)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삼중직의 축복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한 우리 또한 왕답게 누리며 살아야 한다. 현실적인 상황이 어려워 공경하게 살 수도 있으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가난에 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다. 누군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비난하기보다 내가 대신 회생하고 품어주는 것이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다. 동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잘못된 것은 바르게 가르쳐 줄 줄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명확히 일깨워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왕, 선지자, 제사장)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왕같이 누리고, 제사장처럼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며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성령에서 기름은 곧 향기를 상징한다.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어 향기와 빛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둠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고 생명의 향기가 퍼져 나갈 때 환경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삼중직의 축복을 온전히 믿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1.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1) 유대인의 오해와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유대인의 오해와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유대인들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제사를 삼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망각한 채,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에 빠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영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며 시작한다. 한 물신자가 근대시절, 삶의 무게에 눌려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의 일이다. 실제로 그가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름만 나열되는 족보가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에, 남의 아내를 취해 아들을 낳았다는 부끄러운 치부가 고스란히 적혀있는 것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자신도 세리 출신의 죄인이었다. 이 족보는

잡나고 의로운 기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추악하고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도와 선교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 역시 존엄하고 죄를 지은 존재였음을 상기시키며 그렇기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이다.

(2) 이브라함 언약의 성취(창22:17)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증거한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이번계약은 당대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심지어 1,000년 후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수천 년 전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주실 응답을 신뢰하며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눈앞의 작은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미래를 향한 진정한 언약을 소유해야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이 찾아온다.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3) 대적의 성문을 정복하는 왕의 권세 성경에서 말하는 '내 씨는 단수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행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과 죽음, 죄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었다. 전쟁을 할 때 성문이 뚫리면 그 성 전체가 정복되듯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는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존엄 성문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다.

(4) 기도의 유산과 후대의 응답 과거 한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신영균 씨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배우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5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그의 외손녀는 최근 세계적 무대에서 작곡가로 이름을 날리며 큰 상을 받았는데, 이는 기도의 부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후대에서 세계적인 오스카상과 같은 영광스러운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왕의 왕되신 예수를 믿으면 사단이 정당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성문을 박살내고 차지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세상의 작은 풍파에 흔들리며 종교생활을 대충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응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응답에 대한 기대와 선행으로 오늘을 설계해야 한다. 벤저 기업가들이 성공을 확신하며 험난한 고난의 터널을 건넰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날마다 행복할 기대를 품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날마다 행복한 기대감이 넘치는 진도와의 삶을 살기를 축원한다.

(2) 족보에 담긴 용서와 사랑, 그리고 선교의 메시지 예수님의 족보에는 단순한 혈통의 나열을 넘어 용서와 사랑, 그리고 선교의 비밀이 담겨 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네 명의 여인, 즉 다말과 라합, 루,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밧새바)가 등장한다. 유대인의 율법과 유리,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진 여인들이었다. 다말은 사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한 여인이었으며, 라합은 기생이었다. 왕의 의미를 살펴보면 라합은 단순히 술집 여자가 아니라 장녀였다. 루는 유대인이 멸시하던 이방 여인이었고, 밧새바는 다윗과 간음하여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인물들이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다말, 라합, 루이 이방인의 혈통이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가 이미 다문화와 선교의 필요성, 단연성, 그리고 절대성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성령 잉태와 임무성 언약의 성취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 요셉과 마리아 모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완벽한 성취이다. 과거 한 장로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면 DNA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법적으로 완벽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시다. 법적으로는 요셉의 가문에 입양된 양자의 형식을 취하셨고, 육적으로도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셨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며 이방인이 불교하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왕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의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았다. 우리는 이 영적 자부심과 자긍심을 단 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를 놓치면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실재 응답으로 붙잡아야 한다.

(4) 언약을 실천하는 믿음의 도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강단의 말씀을 단순히 "맞는 말이다"라고 동의하며 지나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램프들을 세계적인 서민으로 키우기 위해 1억 원을 들여서라도 유학을 보내겠다는 목회자의 비전이 선포될 때,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 내가 그 사역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도전해야 한다. 최근 우리 교회의 한 의사 장로님은 후대를 키우기 위해 속초의 호ittel을 예약하여 청년들을 초청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 이것이 중직자가 돈을 써야 할 이유이며, 치유의 플랫폼이 되는 멋진 모습이다. 절대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창조되었음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2.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

(1) 산상수훈과 목음의 본질(마5-7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적인 실천목표를 말씀해 준다. 이 산상수훈은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은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철저히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등의 행위를 형식적으로만 수행했을 뿐,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런 겉치레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 사랑과 용서이다. 제사를 지내며 양과 소를 잡고 그 고기를 나누며 잔치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회개하며 피와 땀을 흘리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타인을 향한 회개는 무관심했다.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따르면 형제를 욕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형제간에 진심으로 화해할 경우를 찾지만 매우 어렵다. 성경은 형제를 보고 욕하고 미워하는 자는 지옥 불에 던져진다고 말한다. 이 기준 앞에서 서면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즉, 의인은 있으며 또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형제나 가까운 이웃, 부부, 성도 간에 원수가 생기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할 현장을 원수관계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왕의 왕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저 종교생활에 머물게 된다.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가 주님께 먼저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준은 내 성격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내가 선택하여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창세기 3장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같다.

(2) 전적인 티라과 그리스도의 필요성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지킬 수 없는 기준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일깨우셨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셨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요, 탐하는 자마다 도둑질한 것이다. 이처럼 산성수준은 우리를 위로하는 좋은 말씀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선고하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나 타인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셨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다. 내가 조금 의뎌다고 생각하여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제자를 키울 수 없다. 오직 완전한 복음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오른팔을 치면 왼팔을 돌려대라고 하셨다.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말씀이다. 하지만 우리 영적 상태는 왼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주님은 우리를 심히 죄인 되게 만들도록 친자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신다. 루터와 칼빈이 강조한 '전적인 티라'야 바로 이것이다. 우리에게선 선을 행할 힘과 능력이 조금도 없다.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불기행력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며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

(3)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증거(마8~17장) 마태복음 8장부터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신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많은 이단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임이 아니라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밖에 없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론과 직결된 핵심내용이다.

(4) 하나님 나라와 말세의 소망(마13, 24~25장)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같이 확산되며, 진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 또한 24장과 25장에서는 말세의 상황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신다. 이는 지구의 종말과 재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이를 실제로 믿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내 욕심이나 야망을 위한 삶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작은 헌신만이 하늘에 상급으로 쌓인다. 의식주를 위해 사는 삶은 하늘에 쌓이지 않는다.

(5) 지상대명령(마28장)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계복음화의 지상 명령을 주셨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다. 237나라와 5,000족속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3. 우리에게 주신 절대미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축복(마:21, 23)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표적인 복음성구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미션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신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이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나 '예수아'와 같은 의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이것이 복음의 핵심내용이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임을 증거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과거 시 율역에서 가치를 기다리던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히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가르쳐준다. 우리가 이를 깨닫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느냐며 성경을 '젊은 여자가 잉태한다'는 식으로 잘못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산물이다. 우리만 믿어 무너져도 하나님의 능력 또한 무너진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다. 이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해 오신 참된 왕의 왕이시다.

(2)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인 아들(마6:13-20)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다. 당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개혁신의자), 엘리야(신비주의자), 예레미야(박애주의자)와 같은 종교지도자 중 한 명으로 오해했다. 물론 그 선지자들도 오직 메시아를 기다렸던 인물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수님은 사탄과 죄,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된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다. 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여시고 우리 삶의 이정표를 알려주는 참된 선지자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려분의 막힌 영혼의 길, 무너지는 길, 결혼의 길 등 모든 불가능한 길들이 열리게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믿을 때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는 대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3) 대속물로 오신 선지자의 왕(마20:28) 복음의 핵심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담겨 있다. 예수님은 더위를 능가하는 참된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선지자를 받으려 오지 않으셨다. 도리어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며 복음의 정수이다.

(4)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 마태복음을 통해 주신 첫 번째 미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적도보다 의식주에 더 걱정하고 돈 문제에 매여 사는 것을 보시고 이에 대해 비교적 길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3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살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온 것은 이 꽃 하나만 같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가 무엇을 입을가 무엇을 입을가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다. 나의 조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나 역시 항상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했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고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비록 빛을 지고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렸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나주 주일낮에배 메시지

만남을 주시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셔야 한다. 내 마음이 항상 부족함에 시달리며 돈 걱정한 하고 있다면, 설령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응답이라 할 수 없다. 진정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즉, 내가 해야 할 공부를 하고 필요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나의 어머니는 일이 막히고 안 풀릴 때마다 "그때가 공부하고 자격증을 딸 기회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부모를 통해 평생교육자격증을 따라고 권민한 것이다. 앞으로 은둔형 외톨이(허리코복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주를 가진 우리 밖에 없다. 집안에 박혀 일하지 않는 청년들을 누가 건지려겠는가? 복음 가진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자격증을 갖추고 그 현장에서 들어가야 한다. 다니엘과 요셉도 정부 시스템 밖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세상의 주류 자격증, 즉 국가자격증을 따서 이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떤 장로님은 "10년 전에 목사님을 만났다면 자격증을 떼고 텐데"라며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95세 할아버지도 새로운 언어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늦은 때란 없다. 과부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쁨이 채워졌듯이,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신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데 의식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하고 절대적인 준비를 하면 된다. 현재 쿠바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결과 6년째 비가 내리지 않고 전기와 음식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힘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누리는 오늘의 축복은 지난 과거부터 뿌려진 복음의 결과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는 '남은 자(Remnant)'가 필요하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하도,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가 바로 그 남은 자들이었다. 그 소수가 복의 근원이 되었을 때 나라와 민족이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5)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마5:48) 다음 미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삶의 절대목표이자 절대미션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의 산상수훈 말씀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령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도하며, 의에 주리고 공허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다.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살 수 없다. 또한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으며, 6장 14절은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한다. 특히 7장 1절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다. 우리는 대개 남을 비판하고 힐끔은 재미도 살기 쉬우나, 복음과 은혜 속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비판해야만 혈액순환이 되는 말할 체질로 살게 된다. 성도의 마음속에는 비판이 아니라 진제를 살리고 보호하는 생명 살리는 체질이 각인되어야 한다. 또한 7장 12절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이러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에 포함된다.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복음 안에 들어오면 원수도 사랑하고 비판을 멈추며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조금씩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절대목표이자 미션이다.

(6)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28:19-20) 마지막 미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세계복음화의 절대 미션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는 현장화를, '모든 민족은 세계화를, '제자로 삼아는 제자화를, '세례를 베풀고'는 교회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성화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절대불가능한 부분도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란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장의 시간표가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평생 남이 되고 성장하기를 반복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히 중간시역자로 성장하여 다른 사람을 끝까지 이끌어 주는 영적인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결론
참된 대속과 구원의 왕이시며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땅 끝까지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성도와 후대 램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제능체임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킹제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라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렘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조수영 집사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묵(전담목)	김양순 010-8328-0132
원로목사	최정용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교육전도사	배고은 (네덜란드파송)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전도인	최진희 이미지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라중화 김현 여준석 김경희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지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전민식 장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운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승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세벽기도회	금 오후 8:00	영상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주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고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창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화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군파송자

[육군] 백승원 송영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혜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고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교회 역사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 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회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윤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리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넛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